

## 인도의 기념관들, 그 사랑과 미움의 현장

이옥순 연세대 연구교수

**광**대한 영토와 10억을 상회하는 엄청난 인구를 가진 인도에는 현재의 손을 잡은 과거, 과거를 담은 현재를 보여주는 기념관과 박물관이 아주 많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식민지배와 인도 민족주의운동으로 대표되는 20세기 인도의 파란만장한 역사가 반영된

기념관들을 골라서 소개한다. 여러 다른 지방에 다른 대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이들 기념관은 문화의 힘과 힘의 문화가 어떻게 기념관의 존재(건립과 유지)에 깊이 연루되는가를 대비하여 보여준다.

먼저 동부지방의 콜카타로 가보자. 도시의 오염된 공



기를 걸러주는 메이단(공원)의 끝자락에 서 있는 빅토리아여왕 기념관은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웅장한 건물이다. 1906년 기념관을 착공할 당시 커즌 총독은 “콜카타에 오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한번씩 돌아볼” 건물을 염두에 두었다. 그 뜻대로 오늘날에도 콜카타에 들른 많은 이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과거에 묻혀진 옛날 인도에서 누린 영국의 흔적을 둘러본다.

1901년 인도 제국의 황제를 겸임한 빅토리아 여왕이 사망하자 커즌은 무굴제국의 황제가 죽은 아내를 추모하여 만든 타지마할을 떠올리고 여왕을 추모하는 건물을 짓기로 결정했다. 아무나 강이 배경인 타지마할처럼 후글리 강가에 20세기의 타지마할을 유럽의 건축양식을 가미하여 지었는데, 타지마할처럼 연못이 있는 넓은 정원을 만들고 테라스에는 흑백대리석을 깔았다. 기념관을 세울 대리석을 타지마할에 사용된 대리석과 같은 산지에서 가져왔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인도 문화의 힘을 자랑하는 타지마할과 달리 대영제국의 힘센 총독이 시작하여 1921년에 완공된 빅토리아 기념관은 타지마할처럼 정교하거나 우아하지 않다. 제국의 가치와 영광을 담은, 힘의 문화를 반영하는 건축물은 장엄한 느낌도 적다. 넓은 정원에 자리한 여왕의 동상은 관람객이 들어서서 정문을 바라보지만 오래 전에 사라진 제국처럼 위엄이 사라진지 오래다. 비효율적 관리로 늘 어디선가 공사가 진행되는 기념관에서 제국의 위용을 실감하기는 어렵다.

### 과거에 묻혀진 영국의 흔적

흥미로운 것은 인도를 방문한 영국의 조지 5세가 초석을 내린 빅토리아 기념관의 엄청난 건축비를 모두 인도인이 부담한 사실이다. 인도의 여러 왕국과 성장한 인도 중산층이 역사의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발적으로 기부했다는 것이 공식기록인데, 반대급부를 기대한 자발적인 기부이든 마지못한 선택이든 빅토리아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식민정부의 지원은 없었다. 1988년에는 인도 최대의 기업인 타타 제철이 기념관에 야광시설을 기부하여 그 전통을 이었다.

대략 103×69×56m의 크기인 기념관에는 25개의 전시실이 있다. 그 중의 하나에는 빅토리아 여왕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인도제국의 황제임을 밝힌

선언문을 담은 대리석 석판을 비롯하여 빅토리아의 즉위식과 결혼은 물론 그 아들이 세례 받는 장면과 결혼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다. 실물 크기의 전신상과 심지어 어린 빅토리아가 치던 피아노도 놓여있다. 우리의 기준으로서는 놀랍지만 인도인은 식민지배자에 대한 과분한 대우에 과민하지 않는다.

다른 전시실에는 인도를 지배한 역대 총독의 실물 크기의 석상과 동상들이 죽 늘어서서 예전의 위상과 영광을 알려준다. 그밖에도 정복과 지배에 관련된 여러 인물들의 초상화를 비롯하여 각종 그림, 원고, 조각, 문서, 무기, 지도,

동전, 골동품 등이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기억하게 만든다. 기념관에는 라빈드라나드 타고르와 영국을 위협한 티푸 술탄 등 인도인의 모습은 물론 무굴제국의 세밀화도 자리한다. 그러나 총 3,500점의 전시품은 대개 영국의 과거와 연계되고, 그래서 기념관은 마치 영국의 박물관처럼 여겨진다.

1947년 인도가 독립한 뒤에도 빅토리아 기념관은 살아남았다. 기념관에 전시된 빅토리아 여왕의 모든 것도, 제국의 영광을 증거 하는 자료도 그대로이다. 2세기 가까이 존재한 인도에서 영국의 역사는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지만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리라. 기념관에는 독립 후 민족운동을 주도한 인도 지도자들의 유물과 초상화가 든 전시실을 더해서 시대가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도시로서의 콜카타의 역사를 한눈

에 보여주는 공간도 마련하여 역사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한다.

그렇다면 해방된 인도에서 제국의 존재를 되새기는 이른바 ‘제국의 추억’은 시대착오적인가? 그렇지는 않다. 역설적이지만 대영제국의 전성기에 재임한 빅토리아를 추모하는 이 기념관은 현재를 당연시하는 사람들에게 과거를 되새기는 역할을 수행한다. 패배했지만 마침내 승리한 인도가, 승리했지만 결국은 패배한 영국을 기억하는 것은 당연하다. 권력도 찬란한 과거도 무상하며, 사랑도 미움도 세월을 이기지 못 한다는 걸 일깨우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잠시 바쁜 오늘을 접고 어제를 돌아볼 수 있으므로.

#### 권력도 찬란한 과거도 무상함을 일깨워줘

북부지방의 잘리안왈라 바그 기념관은 그런 점에서 한층 더 소중하다. 잘 정돈된 아담한 바그(정원)는 한적한 분위기지만 폭풍 같은 과거를 안은 아픈 기억의 보관소이다. 1919년 축제를 맞아 비폭력적으로 반영운동에 참여한 수만 명의 민중(대개 농민)이 경고도 없이 날아온 영국군의 총탄 세례를 받고 사망한 비극의 장소인 것이다. 당시 식민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를 인용해도, 이 작은 공터에서 379명의 인도인이 죽고 1,200여 명이 부상했다.

‘영원한 자유의 불’이라는 이름을 가진 불꽃 모양의 거대한 추모탑이 서있는 기념 공원은 1919년의 그날 오후에 갑자기 총격을 받은 사람들이 피할 곳이 전무했음을 보여준다. 다급한 사람들은 총탄을 피해서 바그의 왼편에 있는 우물로 뛰어 들 수밖에 없었다. 120여 구의 시체가 발견된 우물에는 지금 흰색 지붕이 덮여 있는데, 절박한 당시



인도인은 식민지 지배자에 대한 과분한 대우에 과민하지 않는다. 콜카타의 빅토리아 기념관(위)과 그 앞에 있는 동판조각(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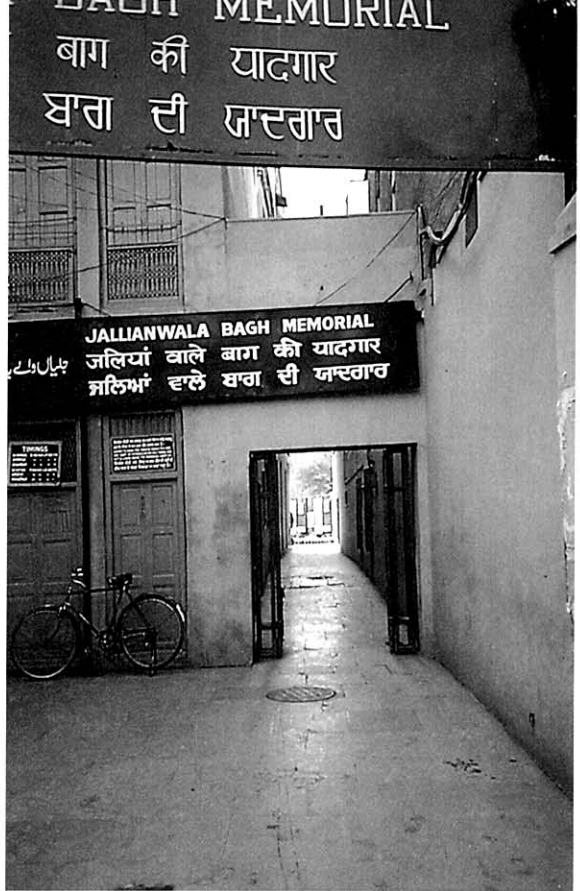
상황을 절절하게 알려준다. 드문드문 총탄의 흔적이 남아있는 벽돌벽도 그날의 비극을 증언하며 공터에 외롭게 서있다.

### 인도 근대사의 분수령, 잘리안왈라 학살

잘리안왈라 바그의 학살은 인도 근대사의 분수령이다. 간디는 “이런 사악한 정부에게 어떤 방식이나 어떤 형태로든 협력하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분노하면서 전국적인 비협력운동을 전개하였고, 노벨상을 받은 타고르는 항의의 표시로 영국 왕실에게서 받은 작위를 반납했다. 독립한 인도의 초대 총리 네루가 열렬한 독립운동가로 변신한 것도 이때였다. 분개한 민중이 반영투쟁에 가담하고 그 지지를 얻은 민족주의운동은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며 마침내 영국을 밀어내었다.

영국 식민정부는 부끄러운 자취를 지우려고 바그를 포목시장으로 바꾸려고 했다. 민족주의자 말비야가 구성된 기념관 건립위원회는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그 땅을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매입하였는데, 구입 자금은 간디가 쓴 호소문의 영향을 받아서 세계 곳곳에서 들어온 기부금으로 충당하였다. 2003년에야 국가 기념관이 된 잘리안왈라 기념관은 그동안 네루를 비롯한 역대 총리가 명목상 대표였다. 그러나 실제로 유지와 관리는 바그를 매입한 말비야의 측근이 대를 이어 맡았다. 편자브 주정부도 약간의 보조금을 부담했지만 기념관은 그동안 재정적으로 곤궁을 면치 못했다.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북부 국경지대에 자리한 이 기념관은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쓸쓸한 느낌을 준다. 바로 옆에 자리한 황금 돔을 가진 시크교 사원은 연일 순례자로 부산하고 바그 앞의 거리는 오가는 자동차와



잘리안왈라 바그 기념관의 입구는 1919년 당시 그대로이다.(위) 기념공원 내의 총탄자국이 난 벽.(아래) 1919년 영국군의 총탄을 피해 다급했던 사람들은 우물로 뛰어들었다.(14쪽의 그림이 기념 우물)

온갖 탈것들, 소리 높여 호객하는 장사치로 소란스러운 상황을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게다가 낡고 우중충한 건물들이 기념관을 가로막고 있어서 눈여겨 찾지 않으면 이곳에 역사적인 장소가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입구가 허술하고 안내 표시판이 부실하다.

자유는 공기처럼 그 존재가 사라진 뒤에야 귀중함을 아는 법이다. 계엄령이 내려진 1919년 인도인은 이 지역을 걸어가지 못 하고 네발로 기어야 했다. 오늘날 바그의 주변은 자유를 누리지 못 한 그 시절의 반동처럼 완벽한 '자유', 제멋대로이다. 역사를 모르는 아이들은 기념공원에서 마구 뛰어놀고 주변 사람들은 무심코 바그에 쓰레기를 버린다. 재정적인 문제로 유지와 보수가 실통치 않아서인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으니 새로운 면모를 기대해본다.

1919년의 비극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11세의 어린 나이에 피에 물든 바그를 목격한 바가트 싱은 1928년 독립운동을 몽둥이로 진압하던 영국 경찰관을 죽였고, 20세에 그 야만적 행동을 전해들은 이곳 출신의 우담 싱은 편자브에 계엄령을 선포한 당시 주지사 오디웨르를 1940년 영국에서 찾아내 암살하였다. 즉시 사형에 처해진 우담 싱의 유해는 1974년에야 겨우 고향에 돌아왔다. 잘리안왈라 바그의 박물관에 자리한 순국자의 갤러리에는 그와 바가트 싱의 초상화와 애국적인 행적은 물론 바그에서 산화한 희생자들의 모습이 벽화로 그려져서 관람자를 숙연하게 한다.

### 묵은 상처를 치유하는 잘리안왈라 기념관

세월은 상처를 아물게 만든다. 그러나 잘리안왈라 기념관은 다른 의미에서 묵은 상처를 치유한다. 1997년 남편과 함께 이곳을 찾은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은 추모탑에 헌화하고 고개를 숙이며 과거의 악연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총리가 되기 전에 바그를 방문한 블레어도 이곳이 식민주의의 최악의 측면을 기억하게 한다는 소감을 남긴 바 있다. 기념관에 들른 다른 영국인들도 방명록에 비슷한 말을 적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현재의 손을 잡은 과거는 그런 과정을 거쳐 미래로 나아간다.

수도 델리의 중심부에 있는 네루를 기념하는 박물관

과 도서관은 콜카타의 빅토리아 기념관이나 잘리안왈라 바그의 기념관보다 훨씬 더 관리가 잘되고 재원도 넉넉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은 인도 민족운동을 이끌고 독립을 이루어낸 초대 총리 네루를 기념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1947년 독립한 날부터 1964년 네루가 사망할 때까지 16년간 거주한 총리의 관저를 기념관으로 개조한 이곳은 외동딸과 외손자가 대를 이어 인도의 총리를 지낸 덕분에 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넓은 테라스가 딸린 특색 있는 박물관은 장미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정원과 잘 정리된 잔디밭, 갖가지 나무가 자라는 넓은 공간에 둘러싸여 무리를 지어 찾아온 관광객과 학생들을 환영한다. 네루가 살던 2층 건물에 들어선 이 박물관에는 생전의 그의 생활을 보여주는 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가구는 물론 네루가 소장한 다양한 물건들이 예전대로 놓여 있다. 특히 전시실에 보관된 각종 신문기사와 사진들은 그의 삶은 물론 인도 독립운동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나무가 가득한 마당에는 1947년 8월 14일 밤 12시 독립을 앞둔 네루가 초대 총리로서 읽은 “우리는 오래전 운명과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약속을 웅대하게 이행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이제 자정을 알리는 종이 울리면 세계는 잠들어 있지만 우리는 자유와 생명을 위해 깨어 있을 겁니다.”로 시작되는 역사적인 연설문의 전문이 큰 바위에 새겨져 있어서 오랜 반영투쟁의 결과인 인도 독립의 의미를 되새겨준다.

박물관 옆에 있는 천문관은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소로 인도의 우주계획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인도인 우주비행사 라케시 샤르마의 우주복이 전시되어 관람객의 흥미를 배가한다.

천문관의 극장에서는 이곳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영화가 매일 상영되는데, 우주계획과 우주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관람객이 몰리는 계절에는 네루와 독립운동을 주제로 펼쳐지는 ‘빛과 소리의 쇼’도 감상할 수 있





다. 잘리안알라 바그 기념관처럼 입장료가 없는 네루 기념관은 지방에서 온 단체관광객이 눈에 많이 띈다.

네루 기념관이 가장 자랑하는 것은 아마도 도서관일 것이다. 새 건물을 지어 들어선 도서관은 인도 근대사, 특히 독립운동사에 관한 자료와 도서를 많이 소장한 훌륭한 도서관이다. 여러 인물들의 소중한 개인문서와 편지들이 보존된 이 도서관에서는 저명한 학자들이 참가한 근대사와 민족운동, 국제관계와 사회과학과 관련된 강의와 세미나가 종종 열린다.

영국의 국립도서관과 제휴, 영국 동인도회사의 문서 등 귀중한 연구 자료와 도서를 교환하여 학자들의 연구를 돕는다.



네루 박물관의 전경과(위) 그 마당에 있는 네루의 독립기념축사가 새겨져 있는 큰 바위(아래)

### 잘 관리되고 있는 네루 기념관

역사는 성공한 사람만 기억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오늘 돌아본 20세기의 다양한 국면의 인도를 반영하는 여러 기념관은 역사가 성공한 사람의 것이 아니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진지함이 사라져가는 오늘날 이들 기념관은 누구를 기리든

어떤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든 모두 역사의 '무거움'과 시간의 엄숙함을 전해주면서 과거가 우리를 괴롭히는 힘을 가진 동시에 미래로 나아가는 출발선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알려준다.